

S#4 / 교무실 / 오후 3시 / E

텅 빈 교무실 안, 영주와 선생님이 상담하고있다. 영주의 생활기록부 자료를 놓고 훑어보고 있는 선생님. 영주는 그 옆의 간의 의자에 앉아있다. 선생님은 간단히 기록을 마치고 영주 쪽으로 의자를 돌려서 영주의 자료를 보며 말을 건넨다.

선생님

그래서 대학을 멀리 가고 싶다고?
니가 지망하는 학교면 근처로 가도 괜찮은데....

영주

성인 되면 꼭 독립해서 살고 싶어서요.

단호한 눈빛의 영주. 선생님은 그런 영주를 보고 종이에 무언가를 끄적인다. 그리고 펜으로 어느 부분을 꼭 집더니 영주를 바라본다.

선생님

그렇지 아무래도, 너네는 평생 이 동네에서 살았으니까.

근데 영주야... 그 혹시 대학이나 이런 이야기 할머니랑은 이야기 된 부분이지?

영주

네?

당황한 영주의 대답. 선생님은 당연하다는 듯 할머니에 대한 말을 이어 나간다.

선생님

아니 그 아무래도 할머니 하시느 일도 그렇고

선생님은 너도 당연히 그...

영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영주는 더욱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선생님은 말을 얼버무린다. 파티션 너머에 서서 둘을 바라보는 해수. 고개를 옆으로 살짝 까딱인다. 영주는 해수 쪽으로 시선을 옮기려다가 다시 선생님에게 시선을 돌린다.